

오늘 배울



말씀

1.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찾아 회개시키려 오신 분임을 압니다.
2. 우리가 주님의 명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심을 압니다.

마음 열기



세상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를 옳은 줄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두움을 보면서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는 죄인을 찾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좋은 친구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친구의 수준은 곧 나의 수준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내가 사귄 수 있는 친구가 결정됩니다.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습니 다. 모세 또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에녹이나 노아, 욥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진실한 친구로 삼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요 11: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그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해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참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직 구원 받지 못한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13~14)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n to lay down one's life for his friends.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ever I command you. (Jn 15:13~14)**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약 2:23, 사 41:8)

(요 15:14~15)

(눅 16:9)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고린도후서 5장 17~20절을 읽어봅시다.

1.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이란 뜻이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 기록해 봅시다.
2.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시기 위해 필요했던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런 희생을 치를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볼 때에 그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4. 하나님을 대신한 사신으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또 무슨 내용으로 권면해야 하는지 적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우리를 친구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과 항상 순종하기를 구합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도 주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우리의 역할을 다 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번개를 통한 교훈



아이들이 잘못하면 바로 매를 때리면 되는 데 선생님은 왜 교탁이나 칠판을 치며 경고 할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교탁이나 칠판을 먼저 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번개가 치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혹시나 번개에 맞을까 불안해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에 바위나 나무를 대신 치십니다. 맞기 전에 말 들으라고 경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가 번개 빛을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것들로 식물을 풍비허 주시느니라 (욥 36:30~31)

그 애는 내 친구니까요

베트남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의 일입니다. 어디선지 날아온 박격포탄이 고아원의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꽂’하는 소리와 함께 지붕이 내려앉고 건물이 무너져내려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친 아이들도 많았는데 그중에는 8살 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장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군의관들 중에서 아이의 혈액형과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에 군의관들은 다른 고아들에게 손짓발짓을 해가며 헌혈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군의관들의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웅성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피를 나누어 주겠다고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어를 잘 모르는 군의관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후에 ‘행’이라는 소년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안도한 군의관들은 급히 행의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행은 다친 소녀와 혈액이 일치했습니다.

드디어 수혈하려고 누운 행은 매우 겁먹은 표정으로 군의관과 부상 입은 소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뽑으려는 순간, 행은 갑작스레 울기 시작했습니다. “행, 아프니?” 군의관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행은 고개를 돌리고 흐느끼기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혈을 한 소녀가 깨어났습니다. 소녀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행은 누워서 눈을 감고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른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베트남 간호사가 마침 이 고아원에 들렀습니다. 군의관은 간호사를 통해 행에게 무슨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오, 세상에! 행은 당신들의 말을 오해했어요. 행은 수혈을 하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대요.” 간호사가 행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행, 왜 죽는 줄을 알면서 그 애에게 네 피를 주려고 했니?” 저우 숨을 고르고 행은 말했습니다. “그 애는… 내 친구니까요.”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